

『보험연구원-한국사회보장학회 공동세미나』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원장 개회사

2023. 2. 27(월)

보 험 연 구 원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입니다.

이번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데 애써주신
양재진 한국사회보장학회장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패널토론 사회를 맡아주실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실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님,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리며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류건식 RMI 경영연구소 연구위원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님,
오영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님,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님,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는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노후생활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공적연금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해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흔히 어떤 위험의 징조가 지속해서 나타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간과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로 오늘날 공적연금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공적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연금은 2055년 연금 파산이라는
회색 코뿔소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공적연금의 파트너로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험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는
이러한 연금개혁의 해안을 찾기 위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이라는
공동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공동세미나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공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을 통해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